YOUTH EXPO 2008

광주 '제4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어떻게 열리나

290개 부스서 '기회·성취·희망의 축제'

오는 5월 말 지방에서는 전국 최초로 광주에서 개최되는 '제4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Youth Expo 2008)'의 주제와 세부 행사 프로그램이 확정됐다. 전시 공간은 빛고을의 이미지를 살린 '희망의 빛, 기회의 빛, 성취의 빛'을 주제로 290개 부스가 설치된다.

청소년들의 끼와 열정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별(Star)난 대회와 예능대회를 비롯한 각종 경연대회와 한국인 최초 우주인인 이소연씨 등 저명인사와 만남, 진로·인권·성문화 등을 주제로 한 청소년 토론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곁들여진다.

보건복지부와 광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5월29일부터 6월1일까지 나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세부 행사 계획을 살펴본다.

■ 제 4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주요 행사

전시관	규모	전시 내용	부대행사
푸른빛 희망관	200부스	청소년 단체·문화체험존, 문화도시 홍보존, 광주문화예술존	저명인사 영상 메세지, 박람회 학술 대토론회, 영화 속 나의 주장 발표회
초록빛 기회관	75부스	나의 미래 엿보기 체험존, 경제 플러스존, 우리가족 웰빙 체험존	청소년 문예대전, 장애인 청소년 예능대회, 추적! 박람회, 별(Star)난 대회
황금빛 성취관	15부스	상상우주체험존, 아트스쿨체험존	청소년 동아리, 전문단체
광주시 특별행사			아시아 청소년 인권·평화 포럼 및 광주선언,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 광주칠석 고싸움 놀이

국내외 청소년 지도자 등 5만명 참가

최초 우주인 이소연씨와 만남의 시간

◇**전시관 구성**='희망의 빛, 기회의 빛, 성취의 빛'이라는 대주제에 맞춰 '푸른빛 희망관' '초록빛 기회관' '황금빛 성취관' 등 3개의 주제관이 설치된다.

'푸른빛 희망관'은 국내 청소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한 자리에서 살펴보고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이다. 진로·교육과 국제교류, 다문화·남북관계, 항공·우주·해양, 폭력·인권, 성문화, 상담·쉼터 등 '청소년단체·시설존'을 비롯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와 한국의 전통예절 및 놀이 등을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존', 주최 도시인 광주 비엔날레 및 인간문화재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만날 수 있는 '문화예술존' 등으로 꾸며진다.

'초록빛 기회관'은 청소년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식품과학과, 귀금속세공과, 이벤트연출과, 사이버보안과, 애완동물관리과 등 이색학과 체험 공간인 '나의 미래 엿보기 체험존'과 물물경제 체험 장터인 '경제플러스존', 향기치료 등 건강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가족 웰빙체험존'으로 구성된다.

'황금빛 성취관'은 과학체험과 가상 시뮬레이션 체험을 할 수 있는 '상상 우주체험존'과 리본아트·점핑클레이·한지아트 등 '아트스쿨체험존'으로 짜여진다.

◇**경연대회**=청소년들의 일상을 담은 시와 수필, 사진, 서예작품을 공모해 시상하는 '청소년 문예대전'과 장애 청소년들이 연극·합창·악기연주·마술 등 장기를 겨루는 '곰돌이 청소년 예능대회'가 핵심이다. 두 대회 모두 참가대상은 만 9세~24세, 접수 기간은 3월24부터 4월26일까지로 입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광주시장상 등이 주어진다.

또한 초·중·고교생들이 다재다능한 끼와 재주를 선보일 수 있는 '별(Star)난 대회', 생생한 박람회의 모습을 현장취재(청소년VJ)와 뮤직비디오,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은 '추적박람회' 콘테스트도 함께 펼쳐진다.

◇**부대행사**=한국인 최초 '탑승우주인'인 이소연(28)씨와 '예비우주인' 고산(30)씨를 초청해 청소년 100명과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또한 청소년 벤처 기업가, 사진작가, 영화감동, 수퍼모델, 여행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저명인사와 만남도 기획하고 있다.

행사기간 중 광주 청소년예술동아리와 중·고교동아리, 빛고을코스프레연합회 등에서 힙합, 댄스스포츠, 밸리댄스, 밴드공연 등을 선보이며, 전문예술인공연도 마련된다.

청소년의 직업역량 강화와 진로개발을 주제로 한 학술토론회와 청소년들의 관심 분야인 진로·인권·성문화·방과후 활동 등에 대한 청소년토론대회, 단편 영화 관람후 의견을 교환하는 '영화속 나의 주장 발표회' 등도 곁들여진다.

◇**광주시 특별행사**=6월 1일에는 바실 페르난도 아시아인권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 청소년의 인권과 평화'를 주제로 한 청소년포럼이 열리고 아시아 청소년인권평화 광주선언이 채택된다. 중국·일본·인도·아프가니스탄 등 10개국 100여명의 외국 청소년과 대구 및 타 시·도 청소년 400여명을 초청해 국제·영호남 교류 행사도 갖는다.

김대중컨벤션센터 분수광장에서는 5월30일부터 이틀간 '너의 음악을 부탁해'를 주제로 청소년음악페스티벌이 이틀동안 열린다. 광주의 첨단산업과 문화수도, 수출100억불 달성 홍보를 위한 특별홍보관도 운영된다. 자세한 행사내용은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홈페이지(www.youthexpo.net)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정병해 광주시 청소년육성담당은 "박람회에는 국내외 청소년과 지도자, 교사 등 5만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라며 "청소년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호텔 종사자 친절교육 광주시와 광주시관광협회는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지난달 31일 신양파크호텔에서 호텔종사자 친절교육을 가졌다. 교육참가자들이 친절한 손님맞이 요령을 실습하고 있다. 이 교육은 오는 7일 프라도호텔에서도 실시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지하철 2구간 11일 개통식

선거법 저촉 논란으로 연기됐던 광주 지하철 1호선 2구간(상무역~옥동차량기지, 8.14㎞) 개통식이 오는 11일 열린다.

광주시와 도시철도공사는 총선 일정으로 미뤄졌던 지하철 2구간 개통식을 11일 오전 10시30분 도시철도공사에서 갖기로 했다.

개통식에는 박광태 광주시장을 비롯해 국토해양부 장관, 지역 국회의원, 각종 기관장과 시민 등 6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한다.

2구간은 현재 1호선 1구간 종점역인 상무역에 이어 김대중컨벤션센터(마륵)~공항~송정공원~송정리~도산~평동 등 6개의 정거장이 신설되고 옥동차량기지가 추가됐다. 이는 현재 운행중인 1구간(상무역~용산차량기지, 11.96㎞)과 연결돼 지하철 1호선이 완전 개통된다.

도시철도공사는 개통일자가 확정됨에 따라 공사 자문위원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시승을 통해 안전성과 편의성 등 운행 전반에 대해 최종 점검에 나섰다. 도시철도공사는 시승식에 앞서 지난달 19일 장애인과 경로 대상자 등을 초청, 교통 약자들의 지하철 이용에 따른 편의성을 점검했다.

또 지난해 3월 전동차(40량) 반입 이후 시운전을 거쳤으며 지난달 중순까지 본선 운행 및 제동시험, 비상 개방 동작 등 전동차 운행 시스템에 대한 기술성능 검사를 마쳤다.

도시철도공사는 개통 전날까지 실제 상업 운행과 똑같은 상황에서 영업 시운전을 해 실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도시철도공사는 1호선 완전개통으로 동구 용산동에서 광산구 옥동까지 33분이 소요돼 시내버스(80분)보다 47분이나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연중무휴 24시간 도서 대출·반납

무등도서관 '자동화 코너'

광주시립도서관은 오는 21일부터 북구 무등도서관에 365일 연중무휴로 24시간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도록 한 '365 야간 도서대출·반납 코너'를 운영한다.

이는 평일이나 근무시간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시민과 학생들을 위한 것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홈페이지(www.citylib.gwangju.kr)에서 대출을 예약하면 야간에 무인 도서예약대출기를 통해 책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책을 돌려줄 때도 자동반납기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062-264-9857로 하면 된다. /정후식기자 who@